

#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강한 경제 구현 '집중'

### 전주시, 산업·경제 분야 6대 추진전략 제시... 수소·탄소·드론·ICT·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강한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전주시가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수소와 탄소, 드론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등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7일 경제산업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로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3대 미래산업(수소·탄소·드론) 육성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및 3고 위기 극복, 강한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사업 강화,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사회경제적·마을공동체 생태계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융합형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주·전주 수소도시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활용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수, 중장기 드론산업 육성 전략 마련과 사업 발굴을 위한 '드론·UAM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3대 미래산업인 수소·탄소·드론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적극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의 성장 기반도 구축한다.

여기에 시는 또 AI(인공지능)와 블록체인, XR(가상융합기술) 등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앞장설 계획이며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한 탄소복합체 가공공화센터 구축, 산학협력 연계망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산학연 거버넌스' 구성,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구축,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등 강한 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

미래·신산업 육성에서 시는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서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된 172억 원 규모로 늘리는 등 '자금지원, 해외 수출기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노사문화 지원' 등 4개 분야 총 15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한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간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부시장 중심의 기업유치 추진단 구성, 인센티브 강화, 팀장급 1:1 책임전담제 등 기업유치 활동도 강화된다.

특히 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 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심부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나아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창출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시민 심뇌혈관 건강 지키기 '앞장'

### 전주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 운영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전주시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인 질환에 속하는 위중 질환으로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 뇌졸중(뇌내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을 아우르는 질환이다.

보건소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 대상자 등록·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교실, 대상자후군 관리교실, 고고당(고혈압·고지혈증·당뇨) 운동교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는 전주시 보건소 3층과 덕진보건소 2층에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방문·전화로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063-281-6338) 또는 덕진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063-281-85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 대변혁·위대한 도약 위한 '신년 현장 업무보고' 마무리

### 우범기 시장,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지·전주 로파크 건립 예정지 방문 점검

우범기 시장은 7일 장동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지와 덕진동 옛 전주법원·검찰청 부지 내 전주 로파크 건립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도서관부와 기획조정국의 2023년도 신년 주요 사업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우 시장은 이날 오후 4월 개관 예정인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내

부 시설과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마무리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국비 75억 원 등 총 16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548㎡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이곳에는 '영·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작은도서관·창작공간, 청소년 작은도서관, 창작공간, 다목적강당'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기주도형 창작활동을 돕고, 독서 생활을 지원할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 시장은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독서문화 확산, 모두를 위한 모두의 공



우범기 시장은 7일 장동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지와 덕진동 옛 전주법원·검찰청 부지 내 전주 로파크 건립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도서관부와 기획조정국의 2023년도 신년 주요 사업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간 도서관 서비스 확대, 책이 문화가 되는 문화산업활성화, 미래를 여는 도서관 공간 조성 등 도서관본부의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피기도 했다.

마지막 현장 업무보고 장소인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를 찾은 우 시장은 전주 로파크 건립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 배치(안) 등을 점검했다.

전주 로파크 건립사업은 민생동법 조타운 조성법·검찰청 이전 이후 쇠퇴한 구도심을 국유지 토지개발을 통해 법체합시설(로파크)과 혁신성장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LH는 위탁개발을 통해 토지를 조성한 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법문화 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하게 된다.

우 시장은 이번 신년 현장 업무보고에 이어 2월 중순부터는 전주의 대변혁과 위대한 도약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각 동을 찾아가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책을 읽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잘 조성해서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과 인근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전주의 대변혁과 위대한 도약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전주시민과 함께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록 기자

##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전북경찰청,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청은 종합대응팀을 운영, 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 등 중요사건을 전담수사하고, 경찰서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서장이 총괄지휘하여 현장검거 및 압정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

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의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강황수 청장은 "건설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고, 특히 신고자·제보자 협박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하고, 안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자주재원 확충 위한 세무행정 집중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해 코로나19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지역 경기 악화 상황 속에서도 전년 징수액 3406억 원 대비 9.6%를 초과한 3734억 원 징수했다. 올해 금리인상 및 여러 사회상황에 따른 거래 감소, 지역 경기침체 예상으로 세수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산구는 2023년 지방세 목표액을 3819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역 성장과 구민 행복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관련부서(건축과)와 협업을 통해 취득세 신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민원 안내로 민원만족도를 증진하고 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 운영으로 납세편의 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업이준 완산구청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임을 놓치지 않도록 세수누락 방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